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뭘 어찌라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줌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개역, 열왕기상 17:8-24]

배교한 이스라엘 대신 까마귀와 사렙다 과부

이 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왕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서 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아마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맡았던 임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던 일들을 전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거의 없어졌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아합왕 특히 이세벨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우로가 없으리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따로 숨기셨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두 가지였는데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아볼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렇게도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전국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숨겨주고 먹여 살릴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불러서 이 귀한 사역자를 먹이고 보존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결한 새입니다. 불결한 새가 물고 온 떡은 못 먹죠. “하나님, 이 불결한 새가 물고 온 걸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결한 까마귀에게 양식을 주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까마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까마귀보다 나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마음이 상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지 않고 까마귀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도 아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까마귀가 음식을 나르다가 얼마 후에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지역은 시돈 땅에 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

려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참 묘하게도 이세벨의 친정 지역에다 숨기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 다. 그것도 가장 불쌍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부와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데, 이 방인이며 거기다가 과부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싫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것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살림이 넉넉하고 부유한 과부도 아닙니다.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떡을 구워먹고 내일 죽겠다고 마음먹은, 극심하게 가난한 이 과부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모두가 우상을 숭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이고 사람 축에 들지 않았던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 이루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정녕 아무도 하지 않겠다면 까마귀도 있고 이방인 과부도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의 표현처럼 세상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것을 꼭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보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 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인가?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주었던 그릿 시냇가는 사해 동쪽 편입니다. 시돈은 거기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잘 아는 곳도 아닌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르밧 과부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먼 지역까지 가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조건은 사르밧의 과부라는 것 뿐입니다. ‘사르밧에 가면 너를 먹여 살릴 과부가 하나 있을 것이다. 가라’ 해서 갔습니다. 플랭카드에 ‘환영, 엘리야 선지자라고 써서 들고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어떻게 찾죠? 아무리 좁은 지역이라도 공개적으로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이 이 과부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지요? 어쨌든 사르밧 지역으로 갔습 니다.

한 여인이 남루한 모습으로 성 밖으로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탁한 것이 ‘물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시절에는 물을 얻어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것도 나뭇가지 몇을 주워서 떡을 구워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말입니다. 형편이 넉넉할 때는 남의 부탁도 잘 들어주겠지만 지금은 남을 생각해줄 형편이 못 됩니다. 마음이 넉넉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면 더욱 힘든 일일 겁니다.

미군이 한국에 근무하게 되면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특별히 따로 교육을 시킨답니다. 이런 항목이 있대요. “차선을 바꾸고 싶거든 깜빡이를 넣지 말고 짹 들어가 버려라.” 그렇게 교육을 한답니다. “이쪽 차 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차에 깜빡이를 넣어주면 뒷 차가 약간 공간을 만들어주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깜빡이를 넣지 말고 그냥 짹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는 왜 그래요? 깜빡 이를 넣으면 뒷 차가 비켜주기보다는 그냥 짹 당겨 버린대요. 그러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깜빡이를 넣지 말라는 건데 이게 한국인의 보편 심리인가 봅니다.

웃기는 사람!

한국인들은 평소에도 이렇다는데 내가 지금 끓어 죽을 판인데, 이것 먹고 죽으려다.’는 사람에게 “물 좀

떠다주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여인이 낯선 사람의 부탁을 듣고 성에 물 가지러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물을 가지러 들어가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떡을 좀 구워다가 주시오.” 이 여인이 듣기에 기가 막히는 말일 겁니다.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몰염치냐? 저 사람이 내 형편을 알거나 알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염치한 부탁을 해도 됩니까? 엘리야가 낯선 과부에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이 평소에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과부를 찾아내려고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런 부탁을 해서 내 말을 들어준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여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무리한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먼 곳으로 갔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좌우간 우리 주인님이 시켜서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기도할 때에 한 여인이 오거든 내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약대 열필에게 물을 다 먹인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우리 주인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짐승인지 아시죠? 사막을 다니는 짐승이라서 자주 물을 먹는 게 아니고 먹을 때 한꺼번에 잔뜩 먹어 놓고 몇 날을 물 안 먹고 가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것도 열필이나...

늙은 하인이 하나님께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엘리야가 요구한 것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것 갖다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에다 “떡도 좀 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저렇게 남루해 보이는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여인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뭄이 시작된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물을 좀 달라? 그것도 낯선 체면에? 아니 그것도 물이 있는 곳에서 달라면 그래도 좀 낫지 성 밖으로 나와 있어서 물을 한 잔 대접하려면 성 안의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떡도 좀 달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 털어먹고 죽을 판인데 요즘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거나 알고 하는 소리야? 아마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이 낯선 사람 엘리야는 참 웃기는 사람일지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기막힌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가루 한 움큼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떡을 구워먹고 우린 죽을 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버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통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그 말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코웃음치고 말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밀저야 본전인데?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저 사람에게 마지막 양식을 떼어서 주면 하나님께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 준다? 만약 저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과 떡 해 먹어도 하루나 이틀 목숨이 더 연장될 뿐이다. 속는 셈치고 하나 구워주자. 만약에 저 사람의 말대로 되지만 된다면 얼마나 큰 득이냐? 속는다고 쳐도 손해볼 것은 조금이지만 저 사람의 말대로 된다면 굶어죽는 것을 면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면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그렇더라도 기분이 상하거나, 느낌상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면 따라가기 어렵죠. 어느 쪽이었던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를 공궤하도록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런 이런 사람이 찾아오거든 그의 말을 잘 듣고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대접을 잘 해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과부

가 미리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을 테지요. 그러나 이 과부는 양식도 다 떨어졌고, 살 도리도 없고, 해도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것 털어먹고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간섭하셨습니까? 어찌면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한 번 도와줘 볼까? 속는 셈치고 한 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때는 이런 저런 계산으로 그랬거나 아니면 “속는 셈치고 한 번 해볼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을까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먹었던 작은 마음, 선을 베풀려고 했던 작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권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난 후에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작지만 선한 욕심이 생겨날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찌면 이 작은 욕심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선하지만 작은 욕심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선뜻 작은 돈 한푼을 주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창피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주고 싶어요. 작지만 적선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못 나서는 이유가 남의 눈 때문이라는 거죠. 작은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 생각을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욕심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명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종이 결국은 통의 가루가 부어도 부어도 다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복의 통로

사르밧 과부는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삽니다.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를 부어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는 원망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벌써 죽었어야 하는 아이입니다. 엘리야가 찾아온 며칠 뒤에 양식이 떨어져서 아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굶어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자를 엘리야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원망부터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적과 은혜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그동안 벌써 죽었어야 할 아들이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어 온 것조차도 생각을 앓는 겁니다. 우선 급하니 원망부터 튀어나온 거죠. 사르밧 과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은 우리 아닙니까? “아담아 네가 다 먹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 탓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이 여자 탓이죠. 내 탓은 없잖아요. 나는 그냥 씹은 것밖에 없죠? 아이들 공부 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생긴 거는 내 닮았는데 말이야 하는 짓은 꼭 자기 엄마를 닮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쁜 아내를 데려다 주어서 그동안 아담이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갱그리 잊어버리고 사고 터지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될 때는 좋아라 하다가 혹시 뭐 잘못되면 전부 남 탓으로 돌리고 원망부터 먼저 하는 우리가 아닌단 말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질이 나서 못 견디겠다 싶어도 이런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그 사이에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어려웠던 과정이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둘이서 똑딱거리며 싸우면서도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방법은 있게 마련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싸우다가 제게 문뜩 떠오른 생각이 “잠시 중지, 여보 당신 본적 어디야?”였습니다. 실컷 싸우다가 본적을 물으니깐 ‘포항시 덕산동 236번지’ 하더라구요. 제 본적입니다. 우리 처가는 대구시 북구 노원1가 1645번지입니다. 결혼한지 올해가 20주년인데 그걸 어떻게 외울까요? 설교하려고 일부러 외운 게 아니고 평소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연애편지를 일주일에 두통씩 써 보십시오. 손에 익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본적 버리고 내 본적을 자기 본적이라고 ‘덕산동 236번지’ 하는데 싸울 일 뭐 있어요? “그만 합시다!” 그래서 끝냈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총각 귀신으로 늙어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이 총각 귀신 면한 것 아니냐?”고 그러지 마시구요. 사실 곰곰히 따져 보면 받은 게 많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잘못되면 원망부터 하기 쉬운데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함께 지내다가 아들이 죽은 것은 이로 인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걸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이 터지면 “아이고 내가 어제 몰래 무슨 짓을 했더니, 혹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을 보고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는구나!”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이방의 과부

날마다 이적 속에 살면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지요.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결국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의 한 여인을 이모저모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마지막 양식을 털어 먹고 내일이나 모레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왔다는 것은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몇 십년 사는 것이 우리 눈에는 긴 세월이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이건 순식간이고 금방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 이외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가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복음송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장미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그러면 다 감사하다는 거지요.

복음송 가사 중에 참 가슴 찡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섯 개 중에 빼고 싶은 게 뭐죠? ‘사랑스레 아픔과...’ 아픔을 왜 넣어요? 아픔은 좀 빼고, 그 다음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꼭 수고해야 합니까? ‘아픔과 수고’가 들어 있기에 그 구절이 제게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아파도 감사, 수고스러워도 감사, 이게 진짜 감사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물 좀 달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떡도 달라?” 지금 남아 있는 한 움큼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하루 먹고 치울 일인데 그걸 내 놓으라고 한단 말이죠.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뭘 어찌라고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대접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한 게 있다면 ‘성경 공부합시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쉬운 요구입니까?

“공부합시다.” 하는 말에 속으로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옛날부터 책이나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인데요. 이 나이에 공부하자면 그게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축구선수로 지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종일 공 차죠. 오전에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죠? 주로 자지요. 잔다고 뭐라 합니까? 축구선수니까 시간 중에 자도 그냥 봐둡니다. 제 옆자리에서 잘 자다가 하루는 갑자기 책상을 째 걷어차는데 책상이 90도 정도 돌아갔습니다. “내 공” 하고 벌떡 일어서더라구요. “참아라. 잠을 자도 곱게 자라.”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다닌 친구가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아들 공부 좀 시켜야 되는데 니가 좀 시켜줄 수 없냐?”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에 따로 모였습니다. 우리 식구와 그 집 식구가 좀 일찍 와서 빈 시간에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만 차고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던 이 친구가 나중에 교회에 봉사할 때가 있을 거라고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내고 열심히 다니더니 뻔뻔하기 이틀에 없던 녀석이 오락 시간에 사회를 제법 잘 보는 것 있죠. 나중에 한 술 더 뜨더니 수화 배우러 다니더라구요. 지금은 제법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교회에서 쓸 수 있을 거라는군요. 수화도 외국어입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 모습이 참 은혜롭더라구요.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뭘 어찌라고?

“내가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 말과 “내게 있는 밀가루가 한 움큼 뿐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고 비슷한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석만 하면 되지 공부는 또 무슨 공부? 계속 그러십시오. 그러면 사르밧 과부처럼 이것 털어먹고 죽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없고 모여질 것 같지도 않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 번 해 보자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낯선 사람에게 말 한 번 붙여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겨우 한 움큼 남은 가루가지고 누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똑같은 애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남에게 나눠줄 것 없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복이 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황수관 박사가 여기 안강 촌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그러대요. 그랬던 그 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의대 교수로 가게 된 동기가 어느 찻간에서 누구에게 전도한 것이었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교수가 되고 유명하게 되었답니다. 전도를 한다고 우리 모두 의대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교회 봉사합시다.” “주일 학생들을 가르칩시다.” 그럴 때 “뭇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하려면 이유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야지요?” “사는 게 얼마나 바쁘는데 새벽기도 갈 틈이 어디 있어요?” 이유를 말하려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 하나 하나가 어찌면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가루를 가지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3인데 12시 반에 집에 오기도 하고 1시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바로 자야될 텐데 그 밤에도 텔레비전은 켜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먼저 자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압니까? 이튿날 텔레비전을 켜 보면 채널이 자기가 잘 보는 곳에 돌려져 있거나 음량이 아

주 낮추어져 있거든요. 텔레비전을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없앨 수 없는 게 집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불편하면 안 틀려나 싶어서 리모콘을 감추기도 했어요. 늦게 들어오면 빨리 자야 좋은데 그 와중에도 한 번은 틀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나봐요? 그 애만 그렇습니까? 구역예배를 빨리 마쳐야 인어아가씨인가 공주인가 볼 건데... 탓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그렇게 없느냐는 말이지요. 아니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금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를 조금 떼어서 드렸을 때 이 여인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런데 왜 여기에 '이제야'가 들어갑니까? 이 일을 다 겪고 보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알았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야를 대단히 좋아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십니까? 무엇 때문이죠? 인물이 잘 나서? 웃으면 안되는데요. 키가 커서? 눈이 시원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시니까 존경하고 좋지, 그것 말고 볼 것 뭐 있어요? 있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셈이죠.

저도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겼거든요. 뭘 보고 좋아합니까? 생기길 잘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키가 큼니까? 우리 딸도 자꾸 키 재어보자고 덤비는데... 아니 굳이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 저를 무척 기쁘게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야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정돈해 봅시다. 어느 날 낮선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반신반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속는 셈치고 한 번 믿어보자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녀로 하여금 완벽한 신앙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체면치레로 달려 나온 사람도 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나온 사람도 있죠. 심지어 총각 시절에 장가가려고 교회 잠시 출석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장사속으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 나올 때는 그렇게 거창한 것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처럼 하도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따라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왔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동전 몇 푼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던 앓은뱅이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려면 동전 몇 푼 받았겠죠. 그런데 얻은 게 뭘니까? 일어나 걷고 뛰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앓은뱅이라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하고 일어나 걷고 뛰는 것하고 어느 게 큼니까? 동전 몇 푼을 바라고 그들에게 요구했다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멋모르고 나왔든 아니면 불들려서 억지로 나왔든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받은 것도 크지만 앞으로 받을 건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팔자 고친 사람이요 황제한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렇게 황제한 사람입니다. 언감생심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도 이방의 과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 다. 우리는 놀라운 감격 속에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보다 앞으로 받을 사랑이 더 큼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보잘 것 없는 이걸 어떻게 드리겠느냐? 능력도 보잘 것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한줌 남은 그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지마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시면 결과적으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며 그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